

Analysts 유승창 | 3777-8057 | sc.yoo@kbsec.co.kr
김도하 | 3777-8070 | doha.kim@kbsec.co.kr

은행 (OVERWEIGHT): 10월 원화대출 연체율 동향 – 하향 안정화 기조 지속

- ◆ 10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.70% (+4bp MoM, -20bp YoY)로 하향 안정세 지속
- ◆ 10월 말 기준 실질연체율은 0.81% (-11bp MoM, -28bp YoY)로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감
- ◆ 연체율 하향 안정화 추세 지속: 은행 대손비용률 하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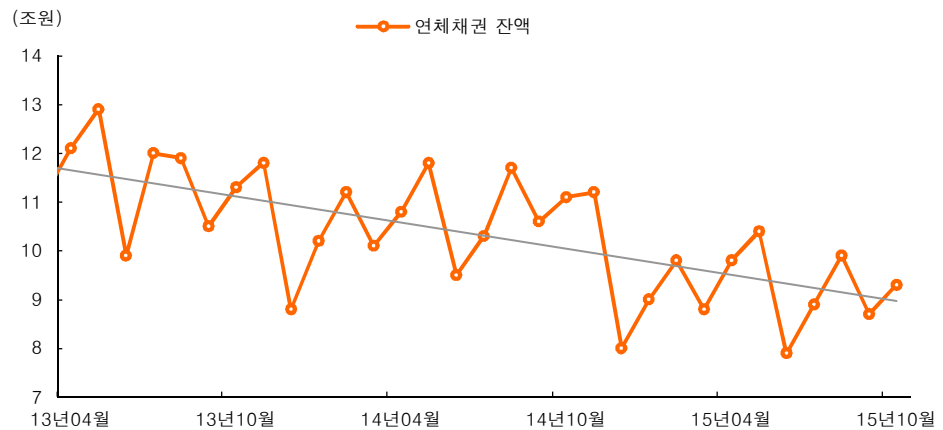
▶ 10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.70% (+4bp MoM, -20bp YoY)로 하향 안정세 지속

-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10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(1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 기준)은 0.70% (+4bp MoM, -20bp YoY)로 2007년 이후의 연도별 10월 연체율 중 최저치를 기록. 계절성을 제거한 3개월 이동평균은 0.71% (전월과 동일, -20bp YoY)로 하향 안정세를 지속했으며,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12개월 이동평균은 0.72%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
- 차주별로 보면 기업 부문 연체율이 0.92% (-17bp YoY)를 기록한 가운데,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체율은 각각 0.92% (+17bp YoY), 0.93% (-28bp YoY)로 나타남. 가계 부문 연체율은 0.40% (-25bp YoY)로 27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하락했으며, 주택담보 및 가계일반 연체율은 각각 0.31% (-23bp YoY), 0.61% (-28bp YoY)를 기록. 대기업 부문을 제외하면 모든 차주의 연체율이 2007년 이후의 10월 연체율 중 최저 수준을 나타내면서 부문별 고른 하락세를 지속
- 대기업 부문의 3개월 이동평균 연체율은 2015년 3월 0.56%를 저점으로 10월 0.99%까지 지속 상승하면서 201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. 업종별로는 주요 업종 중 건설업종의 연체율이 3.58% (+1.7%p YoY)로 나타나 최근 3개월 연속 3%를 상회하면서 조선업, 해운업 등 여타 주요 업종의 연체율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를 보임 (그림 8)
- 10월 중 신규연체 규모는 1.6조원 (전월과 동일)으로 기업과 가계가 각각 1.2조원 (전월과 동일), 0.4조원 (전월과 동일)을 차지함. 10월 중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.0조원 (-1.8조원 MoM)임. 연체채권 정리를 감안한 실질연체율은 0.81% (-11bp MoM, -28bp YoY)로 추세적인 하락을 지속

▶ 연체율 하락은 경상적 대손비용 감소 요인이나, 한계기업 정리에 따른 일시적 대손비용률 상승가능성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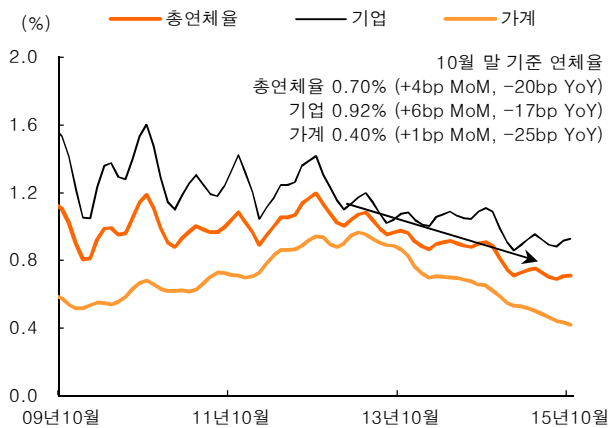
- 2015년의 월별 연체율은 7월을 제외하면 해당 통계를 발표한 2007년 이후의 각 월 최저치를 연이어 갱신하는 상황. 연체채권 정리를 감안한 실질연체율 또한 전년동기대비 10bp~20bp 수준의 하락폭을 꾸준히 보이면서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. 이는 대출 성장에 따른 분모 증가의 영향도 있지만, 저금리 기조에서의 대출금리 부담 경감으로 연체채권 잔액 규모가 8조원~10조원 내외로 유지되면서 분자 효과가 동반된 것으로 판단 (그림 6)
- 연체율의 하향 안정세는 은행의 경상적인 대손비용률 하락에 기여할 전망이다. 실제 주요 7개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합산 대손비용률은 누적 기준으로 2014년 1분기부터 0.60%를 하회하고 있음 (2011년~2013년 분기 누적 대손비용률 평균 0.73%). 다만 최근 한계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향후 은행의 일시적인 대손비용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판단

그림 1. 연체채권 잔액 추이: 연체 규모 자체의 추세적인 감소 동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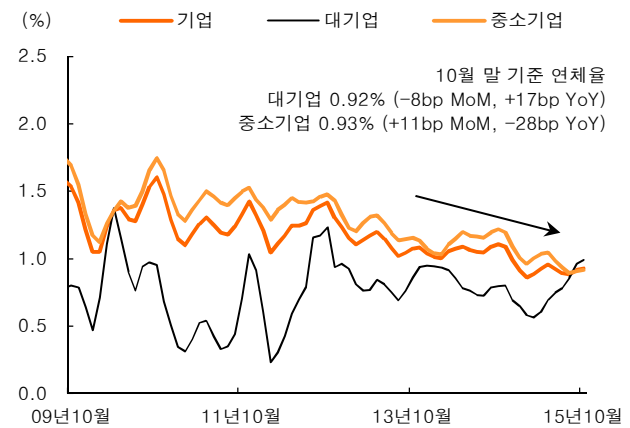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KB투자증권
주: 1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 기준

그림 2. 차주별 연체율 월별 추이 (3MMA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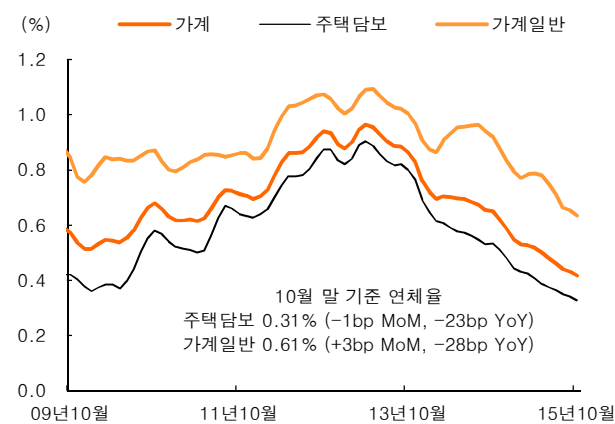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KB투자증권
주: 1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 기준, 3개월 이동평균

그림 3. 기업부문 연체율 월별 추이 (3MMA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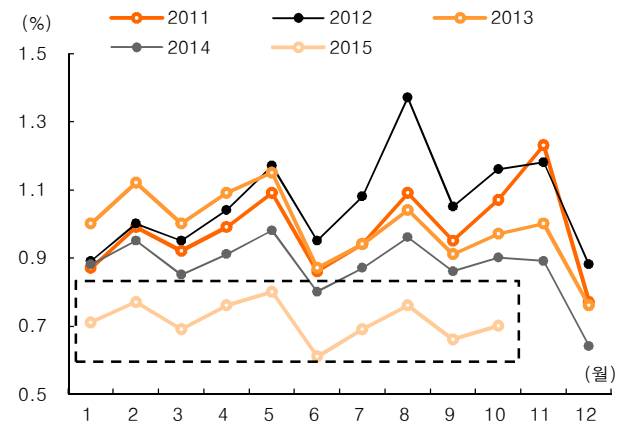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KB투자증권
주: 1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 기준, 3개월 이동평균

그림 4. 가계부문 연체율 월별 추이 (3MMA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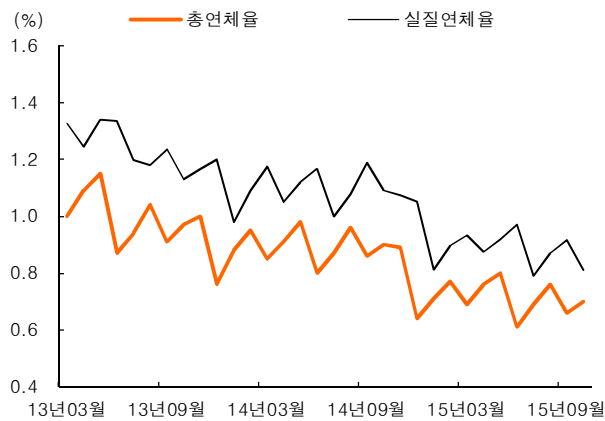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KB투자증권
주: 1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 기준, 3개월 이동평균

그림 5. 최근 5개년 월별 연체율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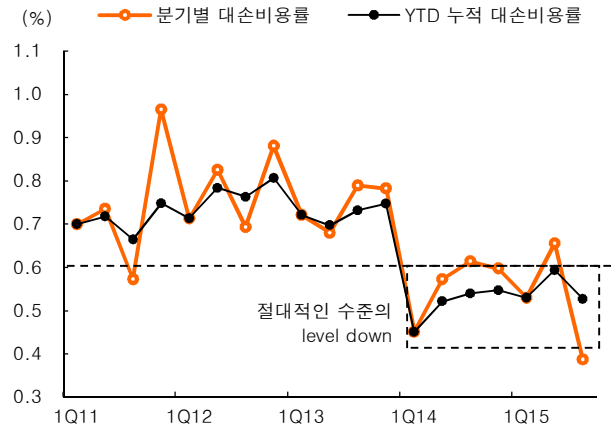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KB투자증권
주: 1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 기준

그림 6. 정리채권 규모를 감안한 실질 연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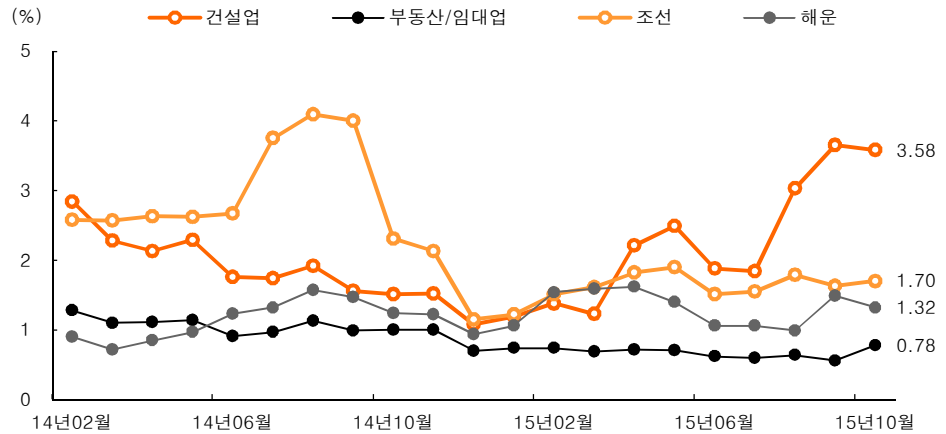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KB투자증권
주: 1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 기준

그림 7. 대손비용률 추이: 상승 추세이나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



자료: 각 사, KB투자증권
주: 7개사 합산 기준

그림 8. 주요 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, KB투자증권
주: 1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발간일 현재 동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조사 분석 대상 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및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.
- 본 저작물은 KB투자증권(주)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,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무단전재, 재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.